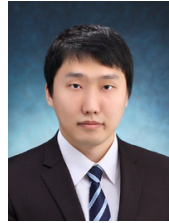


[로스쿨 합격기]

겪을 수 없는 의지

민 경 욱

- 공주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I. 시 작

꿈만 같았던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방에서 애타게 합격통지를 기다리던 게 어제 같은데 어느덧 6기분들이 입학하실 것을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식상한 말로 시작할 만큼 정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1년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숫자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반에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 그런 혼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2011년과 2012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도전하여 2012년에 최종합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5기에 재학 중입니다. 가을에 졸업하였고 채수도 해보았고 모교와 지방거점대학, 인 서울 미니에도 모두 원서를 써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보다 항상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메꾸고자 노력한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원하는 학교에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 나날이 살이 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는 몰라도 저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진학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을 준비 중이 시거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께 작은 힘이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대학교 학부생활

제가 대학교에 입학 할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논의 중이었기에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학부 공부에 충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학부의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조금이라도 학부성적을 높여서 졸업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점을 성실성의 척도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칭 괴물 같은 학점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학점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점이 낮아도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학점에 최소한의 신경을 쓰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학점에서 전공과 비전공의 비율을 궁금하였던 적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라면 전공비율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십니다. 법대와 비법대에 있어서는 법대는 전공과목의 구성까지도 보시기도 하지만 비법대의 경우에는 높은 학점만 보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류평가에서 다른 단과대학 교수님이 참여하신다면 달라지겠지만, 법대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신다면 특히 전공에 대한 비중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대 출신인데 변호사시험과목을 전부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법대생과 변호사 시험과목을 모두 좋은 성적으로 이수한 법대생을 비교할 때 후자에 더 좋은 평가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대에 재학 중이시고 듣지 않으신 소송법이나 실체법이 있다면 해당과목을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비법대 분들이시라면 법학과목을 듣는 것도 좋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선한 인상을 줄지언정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기에 전공에 치중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를 다니면서 전공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전공 성적이 어중간하고 주요과목보다는 다른 전공과목에 치중하여 좋은 인상을 드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외경험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봉사시간이 100시간도 안 되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만큼 대외경험이 없다고 하여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리거나 대외활동의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인성 면접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저에게 어린나이에 대외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쉽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대외경험이나 실적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으나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후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Ⅲ. 2011 첫 도전과 실패

제가 처음 LEET 시험을 본 것은 2011년입니다. 2010년의 LEET응시를 목표로 했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조기졸업에 실패하고 2011년 LEET시험부터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LEET를 준비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개설한 LEET 대비반에서 수업을 들으며 준비하였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와서 저녁시간에 강의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원 강의를 필수인가를 물어보시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무리 없이 푸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리논증에 있어서는 기본강의 정도는 들어보시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혼자서 독학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학원 강의를 들어야만 점수가 잘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연역논증이나 수리게임의 풀이 등 어느 정도 공식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PSAT에 합격한 적이 있는데, 추리논증과 상황판단 은유사하였지만 혼자서 빼대 없이 풀던 문제들을 학원 강의를 수강하면서 풀이방법이나 유형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에는 한 문단 읽고 요약하기와 틀린 보기에 해설 써보기 등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택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별다른 스터디 없이 강의를 듣고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접수를 함에 있어서 당시에 왕십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양대 응시장이 없어서 연세대에서 시험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은 연세대가 신촌역에서 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지도만을 보고 가깝겠지 하고 연세대로 갔으나 시험당일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40분을 넘게 걸으면서 시험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없겠으나 접수할 때 고사장의 위치와 이동수단이 편리한지를 생각하고 접수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LEET와 같은 시험은 당일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수를 할 때 어디서 봐야 최상의 상태로 시험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게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끝냈는데, 자신 있던 어휘 어

법 문제를 모두 틀리긴 했으나 원하던 대학교의 작년 합격생 평균만큼은 나왔기에 바로 면접과 자기소개서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어 학교에서 계속 준비를 할지 다른 곳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여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신림동에 가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였는데 스터디 장소 확보가 용이하고 저와 같이 법대출신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을 장소라는 생각에 신림동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먼저 한 일은 정보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진학가이드를 읽어보기도 했으나 명확하지 못하여 직접 발로 뛰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유명학원의 면접설명회나 자기소개서 공개강의가 있으면 쫓아가서 들었는데 당시에 모든 학원의 설명회를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잡고 싶은 마음에 학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여 신청하여서 한 달 정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상담을 통하여 원서를 쓸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자교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한 곳은 자교를 쓰기로 하고 다른 한 곳은 분할모집에서 단일모집으로 바꿈으로써 인원이 늘어났던 서울권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2011년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진학에서 불합격이라는 3글자로 탈락을 맛보았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LEET점수도 추리논증에서 마킹을 실수하여 백분위가 15점 가량 떨어지게 되어 합격생 평균에서 떨어지기도 하였고, 지원했던 두 곳의 법학전문대학원 모두 면접까지는 갔으나 최종 불합격하였습니다. 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더 이상의 추가합격자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공지를 보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IV. 2012

자신만만해서 도전했던 첫 번째 시도는 어림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된 것은 나름 큰 성과였습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LEET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소개서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공인영어성적도 부족하였습니다. 2012년 들어서는 우선 공인영어성적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 공인영어성적

제가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공인영어성적입니다. 고고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일정 점수이상이면 만점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요강을 보는 것이 필수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1년에는 6월 7월 8월 시험에 응시하였고 2012년에는 1월 2월 딱 2번만 응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인영어점수보다 절대적인 LEET 점수의 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물로 2012년에는 다른 선택을 하였을 뿐입니다. 공인영어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토익카페나 찾아보면 너무도 많으니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다만 너무 질질 끈다거나 공인영어에만 집중하여서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시 않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2. LEET

언어이행의 준비에 있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어휘와 어법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1년에 '중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여타의 문제도 미진하여 어휘 어법 문제를 전부 틀렸기에 2012년에는 그에 치중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휘 어법을 제외하고 더 한 것이 있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학원 강의를 듣거나 모의고사를 보지는 않았고 각 중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LEET, PSAT, 입법고시 PSAT, MEET를 풀어보았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언어지문들까지 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과 똑같이 한 문장을 요약하는 연습과 오답에 이유를 다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릴 문제를 찾는 연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차피 만점을 받을 수 없다면 확실하게 정답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풀어도 틀릴 것 같은 문제를 넘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추리 논증의 준비도 언어이해의 준비와 마찬가지로 기출을 풀어보는데서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2011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시간이 넉넉한 3월에는 문제하나를 붙들고 몇 시간씩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설을 참고하지는 않았고 문제를 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2011년에 정리해둔 기본적인 유형들을 빈틈없이 숙지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위하여 맞춘 문제라고 하여도 다시 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LEET의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더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PSAT의 상황판단도 같이 풀

있었습니다. 시험 한 달 전에는 1등하는 로스쿨학원에서 나온 추리논증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 보았습니다. 정답률을 매우 낮았는데 새로운 풀이 방법이나 정답을 신경 쓰기보다는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기 위한 훈련차원에서 풀어보았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다 풀지는 못했지만 시험 당일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반드시 반영이 되지만 그 비율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평균만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신문을 읽고 반박하는 글을 써보고 모범답안이라는 글을 보게 되면 따라서 필사를 해보고 기출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는 식으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논술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시고 첨삭을 받으면 좋으나 첨삭을 하지 못하신다면 좋은 글을 필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LEET에 입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전부 풀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를 할 때는 두 개 영역이 25개씩 나오면 서울권 대학에 지원가능이라는 말이 있었기에 저는 평균 정답률을 5개 풀면 1개 틀린다고 상정하여 30문제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8개를 목표로 해도 좋고 문제가 너무 쉬우면 더 많은 문제를 목표로 해도 좋지만 자칫 시간 관리에 실패하여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릴 수가 있으니 욕심을 부리기보다 확실한 정답을 맞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는 중요한 요소로 늦어도 한 달 전부터는 꼭 연습하시기를 바라며 문제를 받으면 1번부터 꼭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고 문제를 일별하여 건적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히 넘겨서 뒤에서부터 풀거나 중간에서부터 푸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풀다가 막히면 다음문제를 푸는데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감히 넘기시길 바랍니다.

2011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험장부터 실수가 있었기에 2012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기 위하여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험장은 신림동에서 가까운 중앙대를 선택하였고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시험당일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가듯이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걸리는 시간과 시험장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여 두고 점심식사를 해결할 방법 등을 미리 생각하여 시험당일에는 LEET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볍으로써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시험 당일의 예행연습을 함으로써 당황이나 변수를 차단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일주일 전에 계획한대로 움직였고 오로지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하여 LEET시험을 보았고 2011년보다 크게 상승한 점수로 모든 곳에 지원가능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3. 자기소개서와 면접

2011년의 실패에서 느낀 것은 자기소개서는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화영역이나 전문화 영역을 쓰실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알아보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완벽한 준비 없이 특화나 전문화 영역을 목표로 한 자기소개서 작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성면접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해갔으나 교수님께서 너무 준비한 인상을 받으셨는지 여기 대학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장력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진솔하게 제 자신에 대하여 쓰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꾸준히 쓰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LEET 이후에는 스터디 분들에게 맞춤법이나 문장구조, 표현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듬어 나갔습니다. 대외경험이 없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강조하고자 추구한 부분은 정말 간절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を 원한다는 점과 오로지 공부만 하여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하는 인재가 되겠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없었으나 2012년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작성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저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 하였습니다. 스터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2012년 모두 스터디를 통하여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매해 2개씩 스터디를 하였고 2012년 막바지에는 4개까지 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한 스터디는 모두들 보시는 쟁점담긴 그 책으로 준비를 하였고 다른 스터디는 시사쟁점에 대하여 정리하여 토론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평소 말하는데 자신이 없거나 시사쟁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터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2년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모두 챙겨보았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토론프로그램도 유튜브를 통하여 주요 근거나 말하는 방식을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 토론자의 말을 듣고나름대로 반박해 보는 연습을 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제를 보기보다는 면접 주제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선택해서 보았고 매일 신문을 구독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인성면접에 대한 질문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대비를 하였고 스터디 원들과 정장을 입고 모의 면접을 보기도 하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2012년의 면접은 2011년에 비하여

잘 보았다는 느낌보다는 교수님들께 배우고 왔다는 느낌이 든 면접이었습니다. 너무 긴장 하지마시고 스테디나 연습했던 대로 진취적이지만 상식선에서 대답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 Everything happens for the best

이 말은 2012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말입니다. 2012년에는 결과적으로는 두 곳 모두에 합격하였습니다. 아침부터 판악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합격 전화를 받았습시다. 합격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멍해서 전화를 받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신 두 곳의 교수님들께 모두 감사한 와중에 모교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다른 교수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모교로의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저녁에서야 신이 나서 방에서 춤을 추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행정고시 2차를 치를 기회를 날려버리고 2011년 PSAT도 발목골절로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일이 안되려면 이렇게 안 되는 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범대에 진학했던 처음 목표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일반대학원에 합격하기도 하였고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 쓰진 못했지만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였습니다. 2011년의 실패는 2012년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전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재도전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모든 것은 최고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처음 목표한 꿈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시면 꼭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아직도 연락하는 좋은 스터디 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정말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험들도 그러하듯 법학전문대학원 진학도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점수는 좋았으나 시험 당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신 분도 보았고 면접까지 부담감에 괴로워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노래도 좋고 격언도 좋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희망을 주는 말을 붙여 놓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위에 말과 더불어 A4용지 빼곡하게 각종 영원의 말과 하고 싶은 것을 붙여놓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다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학에 있어 필요한 것은 동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운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점수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왜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가? 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진학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을 하면서 준비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어 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격자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불합격자 있기 마련이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간절한 꿈이라고 생각하면 늘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열람실을 불태우고 있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 분들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201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신 K누나, 내년 변호사시험 좋은 결과 얻으시고 곳곳으로 흩어진 우리 스터디 원들 모두 지치지 말고 노력하여 같이 꿈꾸던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생기시길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